

綜合大學化 指向만이 능사인가

鄭 璿 煥

(金烏工大 機械工學科)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大學이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內實化보다는 外形的으로 큰 綜合大學으로 昇格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 理由 中의 하나가 大學과 大學校의 區別에서 오는 문제점과 財政上的 經營難에서 오는 문제라고 본다.

I. 序 言

8·15解放 전까지만 해도 단 하나의 大學과 初級大學 25개, 各種學校 2개 등 합해서 28개의 高等教育機關에 7,800여 명의 學生이 재학하고 있었으나, 지난 40여년 동안에 6·25動亂, 4·19, 5·16 등의 社會的 變革이 심했음에도, 高等教育은 실로 크게 成長·발전했다.

즉, 1984학년도 현재 高等教育機關은 學校數 441개에 學生數는 1백 20여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向學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는 1983학년도의 大學 進學率이 약 45%가 됨으로써 마틴 트로우(Martin Trow)의 基準에 의하면, 우리나라 高等教育은 大衆教育段階에 있으며 머지 않아 普通教育段階로 진입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人口 1백만명당 學生數를 보더라도 美國 5,000名線, 캐나다 4,000名線, 그 다음인 2,000名線

에 韓國, 西獨, 프랑스, 덴마크, 日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高等教育의 量的인 문제에 있어서는 先進國 水準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高等教育의 質的인 수준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問題點의 指摘과 批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연구·계시해 왔으며, 또한 改善을 위하여 많은 노력도 傾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量的인 擴張에만 급급한 나머지, 많은 대학에서 個性 있는 대학으로의 發展努力이 소외되고 있다. 일 예로서, 設立 당시에는 특색 있는 目的을 가지고 意慾的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본래의 特色과 傳統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教育의 質的인 內實化를 기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큰 綜合大學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색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單科大學에서 綜合大學으로 전

환하였을 때, 이것을 '昇格'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많은 단과대학들은 소위 '昇格'되기론, 열망하고 있다.

筆者는 社會科學이나 教育學에는 門外漢이므로 本題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두려움이 앞서나, 特色 있는 單科大學의 育成과 발전을 염원하는 한 사람의 大學人으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綜合大學 指向性의 原因과 問題點을 분석하고, 그 改善方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單科大學과 綜合大學

1984학년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4年制 單科大學 68개, 綜合大學 42개 합해서 110개교가 있다 (1985학년도에는 單科大學 1개 新設과 綜合大學 昇格 3개, 따라서 單科大學 66개 綜合大學 45개로 111개교임).

綜合大學 指向性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의 定義와 行政責任者 및 財政 등에 관한 事項을 분석해 본다.

1. 定義

매우 상식적인 것 같지만, 單科大學과 綜合大學, 大學과 大學校의 用語를 사용함에 있어서 혼란과 애매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教育法 第109條를 보면 第1項 “大學은 大學(單科)과 大學校(綜合)의 2種으로 한다” 第2項 “大學校에는 3개 이상의 單科大學과 大學院을 둔다” 第3項 “單科大學(大學校의 單科大學을 除外한다)에도 大學院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第1項에서 大學(單科)과 大學校(綜合) 區分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며, 第2項에서 大學校가 될 수 있는 條件을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에 대한 定義는 명백하다.

그러나 大學(單科)의 경우는 綜合大學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 系統의 學問分野만으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의 '單科大學'과 工科, 農科 등 單一系統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人文系, 自然系 등의 다양한 學科를 설치하고 독립된 行政體系를 갖추고 있지만 綜合大學이 아닌 '單科大學'과 그 區別이 애매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單科大學과 綜合大學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말로서 8·15解放 후 植民地政策을 기반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어 오던 教育制度를 美軍政下에서 民主的 教育제도인 美國式 教育제도로 바꾸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은 것이 母體가 되어 政府樹立 후 1949년말 教育法이 제정되었고, 1950년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改正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批判 없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名稱이 오늘날에 와서 問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이다.

解放後 軍政下에서나 教育法 制定 당시에는, 單科大學을 統合하여 綜合大學으로 改稱하거나, 新設되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工科, 農科 등 單一學問系統의 單科大學들이 있기 때문에, 綜合大學의 單科大學이나 독립된 單科大學의 差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그 概念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즉, 既存 單科大學을 통합하여 綜合大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單科大學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人文系와 自然系를 착실하게 발전시켜 綜合大學으로 成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獨立된 단과대학의 명칭을 綜合大學의 단과대학과 같게 하여, 사용상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그 格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個性 있는 單科大學의 育成·發展에 있어서 直接·間接의 阻礙를 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과대학, 종합대학을 모두 '大學校'로 그 명칭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綜合大學의 單科大學 명칭을 '學部'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美國의 경우를 보면 綜合大學은 'University', 單科大學은 'College'로 구분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다를 바 없으나, 종합대학의 單科大學은 'College'보다 'Faculty of ○○'을 더 많이 쓰고 있어 College와 구별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모두 '大學'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大學에는 '學部'와 '大學院'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單一 學部를 가지고 있는 小規模 大學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學部를 가지고 있는 大

規模大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昇格'의 熱望을 없애고 特色 있는 大學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名稱을 '大學校'로 모두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行政責任者

教育法 第75條 第1項 第2號에 의하면 大學에는 學長(大學校에는 總長), 教授, 副教授, 助教授, 專任講師와 助教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과대학에는 '學長'을 종합대학에는 '總長'을 行政責任者로 하고 있다.

同 條項에서 總·學長の 任務도 명시하고 있는데, 그대로 옮겨 보면 "總長 및 學長은 敎務를 統制하고 所屬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教育公務員法 第24~28條에 의하면 總長·學長은 大統領이 任命하며, 教授, 副教授, 助教授의 任用에 관한 提請權과 專任講師, 助教 및 6級 이하의 一般事務職에 대한 任用權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總長이나 學長の 任務와 權限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1984년 12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발행한 「總·學長の 職務分析과 大學內部 行政體制의 效率化에 관한 研究」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總·學長の 職務內容이 同一하며, 그 責任이 莫重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綜合大學 單科大學의 學長에 대하여 살펴보면, 任用 節次 및 任務自體가 독립된 單科大學長과 다르게 되어 있다. 즉 大學校의 學長은 總長の 提請을 받아, 文敎部長官이 教授, 副教授 중에서 補하도록 되어 있으며, 任務는 總長の 命을 받아 敎務를 統制하고 소속 공무원을 指揮·監督하며 學生을 指導·教育한다고 되어 있다.

總·學長の 報酬와 禮遇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公務員 報酬規程과 國內旅費規程을 調査해 보았다.

公務員 報酬規程 別表 第10에 의하면, 總長은 特1號俸, 單科大學長과 大學校의 副總長은 特2號俸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國內出張旅

費에 관한 규정을 보면, 總長은 長官級인 特號 1號俸, 副總長 및 4年制 大學長(大學校의 學長 포함)은 次官級인 1號俸를 적용함으로써 國務委員에 상당하는 禮遇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總·學長은 대학의 規模에 差異는 있다고 하더라도 職務內容과 責任은 동일하지만 報酬와 禮遇面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2年度版 日本의 「文部法令要覽」에 의하면 대학의 學長은 指定職(次官級)에 해당하는 俸給表 中 甲을 一律적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旅費規程을 보면 역시 次官級の 禮遇를 一律적으로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앞서 '定義'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名稱의 차이에서 오는 影響이 크다고 보며, 綜合化를 지향하는 間接的인 要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昇格'이란 말은 下級機關에서 上級機關으로 格上되었을 때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解決方案으로서는 역시 '大學校'로 명칭을 통일하고, 行政責任者도 그에 알맞는 명칭인 '總長'(알맞는 명칭이 있다면 總長이 아니라도 좋다고 생각됨)으로 統一하는 것을 提案하고 싶다.

美國에서도 總長에 해당하는 단어인 'chancellor'가 따로 있지만, 綜合大學, 單科大學을 막론하고 'president'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3. 行政組織

國立學校 設置令과 서울大學校 設置令에 의하면, 대학교에는 下部組織으로서 敎務處, 學生處, 事務局 등의 大學本部和 單科大學, 大學院 및 附屬機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單科大學인 대학에는 敎務課, 學生課, 庶務課 등의 大學本部和 大學院 그리고 學科 및 附屬機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큰 單科大學은 대학이 부담해야 할 行政業務의 量이 폭주하여 보다 큰 大學行政 機構의 必要性이 증대되지만, 法令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該當大學

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綜合大學化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私立大學의 경우에는 行政機構에 대하여 비교적 자유스럽기 때문에, 규모의 大·小를 막론하고 綜合大學의 行政組織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私立과 國立大學의 立場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역시 綜合大學化 指向에 끼치는 影響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解決方案은 안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大學의 名稱을 통일하고 下部組織은 대학의 規模에 알맞게 규정하는 길이라 하겠다.

4. 財 政

1984학년도 基準으로 볼 때 總 110개교 중, 綜合大學은 42개교로 38.2%이고, 單科大學은 68개교로 61.8%로서 수적으로 많지만, 在學生의 80% 이상이 綜合大學에 籍을 두고 있기 때문에, 單科大學에는 1개교당 平均 3,000여 명의 學生이 在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單科大學의 대부분이 規模가 작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있어 財政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1985년 3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 발간한 「高等教育統計資料集」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사실이 뒷받침된다. 즉 人件費의 納入金 依存度를 비교해 보면, 綜合大學은 59.7%인데 반하여 單科大學은 142.7%로서 굉장한 差異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國立大學의 경우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國家政策上 필요한 教育大學 등의 特殊大學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大學支出配分에 있어서도 人件費 比率이 종합대학에는 평균 48.8%로서 건전한 形態이나 단과대학은 평균 55.8%로서 不健全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110개 대학 중 私立大學이 70.9%이며, 68개 대학 중 私立大學은 67.6%인 46개 대학이므로 財政上 어려움을 겪고 있는 單科大學은 대학財務構造의 改善을 위해서도 綜合大學化를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大學教授가 받고 있는 俸給에 있어서도, 종합

대학은 평균 653.95천원인데 비하여 단과대학은 931.8천원으로 綜合大學에 奉職하는 教授가 單科大學의 教授보다 더 나은 待遇를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要因들이 複合적으로 작용하여 직접·간접적으로 綜合大學化를 지향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우수한 教授들은 보다 나은 條件을 가지고 있는 綜合大學으로 移動하고자 하기 때문에 單科大學의 特色 있는 發展努力에 支障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 特殊目的의 大學에 대하여는 國立化하여 特色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 高等教育의 70% 이상을 私立大學에서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財政支援을 대폭 擴大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最近에 매우 特色있게 發展하고 있던 2개의 工科大學이 綜合大學으로 轉換하였으며 校名도 동시에 바뀌었다.

美國의 경우 MIT만 하더라도 110년이 넘도록 그 傳統을 계속 校名에서부터 이어가고 있다. MIT가 單科大學이고, 行政責任者의 명칭이 ‘學長’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가까운 日本을 보더라도 工業·農業 등의 많은 單科大學들이 수십 년 이상을 特色 있게 계속 發展해 가고 있음을 본다.

綜合大學으로 된 2개의 대학 중 地方에 위치한 대학은 大學 및 地域社會의 均衡發展上 필요했다고 생각되며,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大學과 學問의 均衡發展을 위해서 또한 필요했다고 이해하면서도 이제까지 착실하게 쌓아 왔던 特色 있는 大學의 傳統이 斷切되거나 앓을까 하는 우려를 느끼게 한다.

Ⅲ. 金鳥工科大學 紹介

單科大學으로 特色 있게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筆者가 奉職하고 있는 金鳥工科大學의 경우를 여기에 紹介하고자 한다.

1. 設立背景 및 趣旨

'60년대 이후 급속한 工業發展과 아울러 우수

한 科學技術人力 需要 增加와 自主國防 및 軍技術 精銳化를 위한 中堅技術人의 需要 增加는 先進工業國家 건설과 國家安保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時代的 課題로 대두되었고, 이와 같은 重要性을 적시한 故 朴正熙 前大統領은 資質이 우수한 農·漁村의 中學生들을 선발하여 장차 우리나라 工業技術發展에 最先峯이 될 中堅技術人을 양성하고자, 1971년 學校法人 金烏學園을 創設하고, 1972년 慶北 龜尾市 龜尾輸出産業工團內에 金烏工業高等學校를 설립하였다. 평소 남달리 工業技術教育의 重要性을 강조해 온 金烏學園 創設者는, 우리나라 產業界와 國防科學技術 분야에서 踐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創造的·實踐的’ 高級技術人力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 려서부터 技術的 素養을 몸에 익힌 우수한 工業系 學生을 모집, 高度의 頭腦啓發教育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教育哲學의 信念을 가지고 金烏學園內에 工業技術系 學生만을 대상으로 하는 高等教育機關인 金烏工科大學을 慶北 龜尾市에 설립하고 1980년 3월에 開校하였다.

2. 教育目標

우리나라 教育法에 明示되어 있는 教育目的을 달성하던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教育目標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産業社會에서 精誠·精密·正直을 生活化하는 中堅靑年을 육성한다.

둘째, 國家觀이 투철하며, 國家와 民族의 發展을 위하여 殫精할 수 있는 生産的인 現代人을 육성한다.

세째, 우리나라 產業體의 現實的 要求에 부응할 수 있는 ‘創造的·實踐的 工學技術者’를 육성한다.

3. 特色

本大學의 特徵은 한마디로 ‘創造的·實踐的 工學技術者(Engineering Technologist)’를 育成한다는 뚜렷한 教育目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教育프로그램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능한 한 工業技術系 學生만을 선발한다.

둘째, 卒業履修學點은 160학점 정도로 하며 工學應用과 實驗·實習에 중점을 둔다.

세째, 專攻 모듈제(Module Approach)를 채택한다.

네째, 現場實習과 卒業研究에 必須學點을 주어, 創造力과 實踐力을 기르게 한다.

4. 設置學科 및 專攻

開校 당시에는 機械工學科, 電子工學科만으로 출발하였으나, 1983학년도부터 建築工學科와 土木工學科가 신설되었으며 龜尾工團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1985학년도에는 機械·電子分野에 夜間講座를 개설하였다.

設置學科 및 專攻分野 現況은 <表 1>과 같다.

<表 1> 設置學科 및 專攻現況

學科名	卒業定員	專攻名
機械工學科	160 (60)	· 兵器工學—로케트分野에 重點 · 生産工學—生産自動化에 重點 · 機械設計學—生産設計에 重點
電子工學科	160 (60)	· 電子通信工學—레이더에 重點 · 電子制御工學—自動化에 重點 · 電子計算機工學—Hardware에 重點
建築工學科	60	
土木工學科	60	
合 計	440 (120)	

()內는 夜間講座의 定員으로서 별도임

5. 綜合發展計劃

金烏工科大學 長期綜合發展計劃의 基本精神은 ‘工科大學으로서의 綜合化’이다. 즉, 工科大學으로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金烏學園의 構想이다.

工科大學으로 綜合化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는 工學系에는 既存學科 이외에 産業工學科, 工業化學科, 制御工學科, 材料工學科, 化學工學科, 原子力工學科 및 纖維工學科이고 理學系에 應用數學科, 應用物理學科, 應用化學科(工業化學科 改編), 電算學科 등으로 總學生規模는 4,000명 선이며 卒業定員은 1,000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校地는 3만여 坪이고, 앞으로 3만여 坪 정도를 더 擴張시킬 계획이며 外形보다는 內實을 기하는 大學으로 發展시키려고 계속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6. 發展 展望

工業系 學生만을 대상으로 하는 工科大学은 우리나라에서는 金烏工科大学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公업계 학생에게 希望과 勇氣를 갖게 하고, 士氣를 振作시키는 등 工業技術教育의 발전에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影響을 주고 있다.

1986학년도에 開校될 예정인 韓國科學技術大學에서도 일부는 工業系 學生들만을 選抜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工業技術教育發展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日本에는 東工學園에서 운영하는 私立 日本工業大學이 있으며 歷史도 18년이나 된다. 在學生 2,000여 명에 工學系 4개 學科(機械, 電氣, 建築, 시스템)만으로 착실하게 成長·發展하고 있는 특색 있는 대학으로 日本內에서는 성공한 大學으로 評價되고 있다.

自由中國에도 國立臺灣技術工學院(4年制 正規 工科大学)이 工業系만을 대상으로 工學技術教育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金烏工科大学과 같은 特殊目的 大學은 特色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素地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金烏工科大学도 특색 있는 대학으로의 發展에 內外的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

즉, 첫째가 財政的인 問題이다. 財政自立도가 빈약한 私立이고, 實驗·實習施設과 資材를 많이 필요로 하는 工科大学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말하는 財政自立의 分枝點인 學年當 學生數가 1,000명 이하인 小規模 大學이기 때문이다.

둘째, 地域社會의 特性 問題이다. 工業團地만 볼 때에는 工科大学만으로 충분하겠지만, 工團 背後都市로 성장하고 있는 龜尾市로 보아서는, 다양한 學問分野 開設로 市民의 高等教育機會의 확대와 地域의 均衡 發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烏工科大学의 경우는 특색 있는 대학으로의 발전을 確信하면서도, 上記한 內外 道 變數의 強度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IV. 結 言

앞에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特色 있는 大學으로 發展하기가 어렵고, 綜合大學으로 昇格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하여 가장 常識的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大學校’와 ‘大學’의 관계는 일반 行政組織과 같은 上級, 下級の 概念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大學校는 長官級의 上級機關이고, 大學은 次官級의 下級機關인 셈이다. 初·中等學校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없다. 일 예로서 서울의 100여 學級 이상의 國民學校長이나, 시골의 10여 學級 정도의 校長은 同一級으로 되어 있다.

한데 대학에서 그 規模의 크기에 따라 差等を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더구나 大學組織은 共同體이며, 自治的으로 管理·運營되는 機構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된 大學들을 그 規模의 크기에 따라 區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財政難을 겪고 있는 많은 私立大學에 대하여는 財政支援을 擴大함으로써 運營上 불가피한 綜合大學 指向性을 막고, 特色과 個性이 있는 大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이 問題 解決의 方案이라고 생각한다. *